

TDB 경기동향조사 (전국) - 2013년 5월조사 -

2013년 6월 5일
 주식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경기DI는 43.0, 전월대비 0.6 포인트 증가로 6개월 연속 개선

~ 국내경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간 격차를 동반하며 완만한 상승 지속 ~

(조사대상2만2,910사, 유효회답1만145사, 회답률 44.3%, 조사개시2002년5월)

<2013년 5월 동향 : 완만한 상승 지속 >

2013년 5월 경기동향지수 (경기 DI : 0~100, 50 이 판단분기점) 은 전월대비 0.6 포인트 증가한 43.0로 6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주식시장에서는 5월 23일 닛케이평균주가가 전일대비 1,143 엔저가 되는 등 급격한 난조를 보였지만 월간을 통틀어서 엔저·주가상승 경향이 이어졌다. 또한 2012년도 보정예산의 집행 본격화와 골든위크 중 날씨가 좋아 국내여행이 증가하여 『건설』 『운송·창고』 『소매』 등 10업계 중 8업계, 51업종 중 29업종이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간 격차를 동반하면서 완만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간 격차가 조사개시 이래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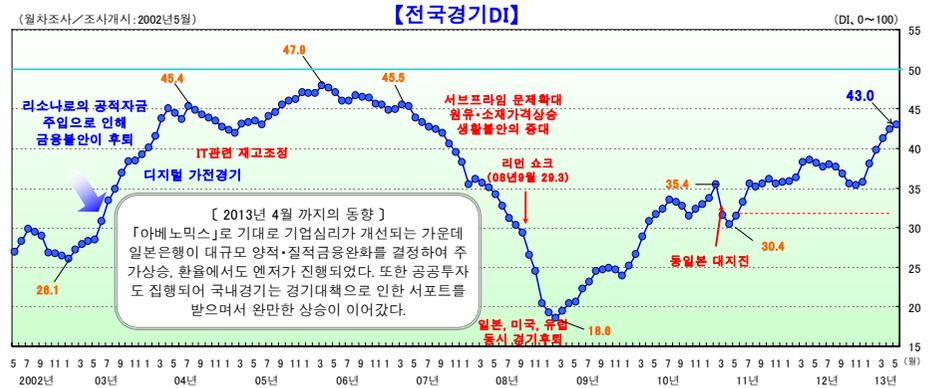
「대기업」(46.4), 「중소기업」(42.0), 「소규모기업」(41.6)은 6개월 연속 전규모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기업만큼 개선폭이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간 격차는 4.4 포인트로 조사개시 이래 최대 격차였다. 경기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베노믹스효과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 『운송·창고』, 2007년 10월 이래 수준으로 회복

『운송·창고』는 공공투자, 수출, 통신 판매의 증가로 물류 수요가 확대되었고, 골든위크 중 국내여행 호조로 여객 운송이 개선되어 2007년 10월(42.7) 이래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4개월 연속 전체를 하회하는 수준이 이어졌다.

· 10지역 중 8지역이 개선,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전체 10지역이 40을 상회

『토카이』 『키타칸토』 등 10지역 중 8지역이 개선되었다. 『토카이』는 엔저로 기계나 자동차 관련이 개선된 『제조』, 생산확대로 인한 물류량 확대로 5년 7개월 만에 50을 상회한 『운송·창고』 등이 개선되어 전국 10지역 중 제2위로 상승했다. 또한 『키타칸토』가 41.4로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10지역 전부가 40을 상회했다.



< 향후 전망 : 완만한 회복이 이어짐 >

긴급경제대책으로 인한 공공투자 집행이 여름철에 본격화되어 여름보너스가 3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소득환경의 호전을 배경으로 소비 마인드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소비세를 인상을 앞둔 주택투자 등 내구재의 막바지 수요, 6월 공표한 성장전략의 실시가 기대된다. 또한 수출은 엔저로 인한 수량면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여 내외 수요 모두 기대 선행에서 실수요로 이행한다.

그러나 기업의 과반수가 전기요금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전혀 전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업의 인식조사」 (2013년 4월 조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 엔저로 인한 소재가격 상승과 함께 기업 수익의 압박이 염려된다. 또한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장기금리 동향에도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대에서 실수요로의 경기지지 요인이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경기 예측DI는 소폭이나마 개선이 이어져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DI	2012년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1월
경기DI	38.2	37.6	37.9	37.7	36.8	35.5	35.3	35.7	38.0
전월대비	▲0.3	▲0.6	0.3	▲0.2	▲0.9	▲1.3	▲0.2	0.4	2.3
경기DI	2013년2월	3월	4월	5월	경기예측DI	1개월후	3개월후	6개월후	1년후
경기DI	39.8	41.3	42.4	43.0	경기예측DI	43.6	44.9	45.6	48.9
전월대비	1.8	1.5	1.1	0.6	2013년5월대비	0.6	1.9	2.6	5.9

※1: 색상이 없는 부분은 개선, 황색은 보합, 청색은 악화를 나타냄
 ※2: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10업계 중 8업계가 개선

• 『부동산』 『제조』 『도매』 『운송·창고』가 6개월 연속, 『건설』 『서비스』가 5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10업계 중 8업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중국의 개별소득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계기업의 자동차판매 등도 서서히 안정되고 있고 「중국진출」(43.5) 기업의 경황감은 전월대비 1.2 포인트 증가하여 6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센카쿠 문제로 발단이 된 반일데모전(2012년 8월, 38.9) 수준을 4.6 포인트 상회했다.

• 『건설』 (47.6) ... 전월대비 1.2 포인트 증가. 5개월 연속 개선. 2012년도 보정예산의 집행, 집합주택의 건축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호쿠리쿠』(51.7, 동 1.1 포인트 증가), 태양광발전 관계설비, 소비증세전 분양주택으로의 막바지 착공 등이 나타나는 『토카이』(46.9, 동 1.5 포인트 증가), 판매가 호조인 맨션신축, 해체공사의 증가, 공사 단가가 상승을 보이는 『미나미칸토』(48.1, 동 1.9 포인트 증가), 농업, 산림토목 등 공공 공사가 상회하고 있는 『훗카이도』(48.6, 동 0.9 포인트 증가) 등 10 지역 중 9 지역에서 개선되었다. 특히 『훗카이도』는 전년동월과 비교해서 19.5 포인트 증가로 전국에서 최대 개선 폭이 되었다.

• 『운송·창고』 (42.6) ... 동 1.1 포인트 증가. 공공투자의 증가로 화물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통신판매 증가로 물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달러가치가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외항해운에서는 운임하락 등 마이너스 요인을 엔저가 보충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골든위크 중 국내여행자수가 호조를 보여 여객운송이 개선 되는 등 『운송·창고』는 2007년 10월(42.7) 이하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4개월 연속 전체(43.0)를 하회하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 『제조』 (40.3) ... 동 0.6 포인트 증가. 6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자동차생산 증가가 관련부품으로 파급되고 있는 「전기기계제조」(41.9, 동 1.8 포인트 증가), 수지소재 관련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품제조」(42.6, 동 1.6 포인트 증가)가 개선되는 등 『제조』는 12업종 중 7업종이 개선되어 2007년 12월(40.8) 이래 5년 5개월 만에 40을 상회했다.

• 『부동산』 (49.2) ... 동 0.4 포인트 증가. 6개월 연속 개선. 신축빌딩의 공실률이 저하되고 있고 소비증세전 막바지와 급격한 가격상승이 일단락 되고 있는 『키타칸토』(44.4, 동 5.5 포인트 증가), 『훗카이도』(58.9, 동 2.6 포인트 증가), 『큐슈』(47.8, 동 2.0 포인트 증가) 등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선 지역이 증가해 10지역 중 7지역이 개선되었다.

		12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농·임·수산		35.0	34.8	34.5	35.8	35.2	33.3	33.7	34.9	36.0	36.8	35.7	35.4	39.7	▲ 4.3	2.3	
금융		37.6	38.0	37.7	37.7	37.5	35.7	36.1	36.2	41.3	42.4	41.9	44.7	44.4	▲ 0.3	10.2	
건설		35.5	36.2	37.2	38.0	38.1	38.6	39.0	38.7	41.9	43.8	45.3	46.4	47.6	▲ 1.2	19.5	
부동산		37.9	38.2	39.2	38.5	38.3	36.7	35.7	37.0	40.9	45.7	46.8	48.8	49.2	▲ 0.4	13.2	
제조	식품분류·사료제조	36.6	35.2	34.5	33.8	34.7	33.4	32.7	33.4	34.5	35.6	36.8	38.7	38.1	▲ 0.6	4.8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9.4	37.9	37.9	35.9	36.0	33.7	33.1	35.6	36.9	37.3	38.1	39.9	37.8	▲ 2.1	1.7	
	기계·기구·요업·토석제품제조	34.9	34.5	36.4	35.6	37.9	36.4	37.0	38.2	38.9	40.3	42.7	43.4	45.3	▲ 1.9	12.0	
	철·강·중·중이·중이·중이·중이	34.2	34.2	33.6	34.7	32.7	30.2	30.8	31.1	33.3	33.0	36.0	37.0	38.2	▲ 1.2	5.0	
	출판·인쇄	30.5	29.3	28.5	29.6	28.6	29.1	29.2	28.3	29.6	31.4	32.8	32.8	33.1	▲ 0.3	5.9	
	화학제품	39.7	39.7	39.2	39.2	36.4	35.0	33.3	34.1	36.4	38.0	39.9	41.0	42.6	▲ 1.6	1.1	
	철강·비철금속·광업	38.4	37.7	38.0	37.2	35.6	32.1	31.9	32.6	35.5	37.6	38.5	39.7	40.0	▲ 0.3	1.1	
	기계제조	41.3	39.3	38.6	37.8	36.4	34.0	33.4	32.7	36.3	39.2	39.8	40.0	41.0	▲ 1.0	▲ 2.0	
	전기기계제조	38.7	37.6	38.2	37.2	34.8	32.6	31.8	32.8	35.8	38.2	38.4	40.1	41.9	▲ 1.8	0.3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8.2	44.9	44.4	43.1	40.5	33.3	32.8	32.6	34.2	41.2	45.6	47.0	46.5	▲ 0.5	7.7	
	생활기계·여표기계·기구제조	37.1	39.5	39.7	39.4	36.2	33.5	32.5	32.4	33.6	36.5	36.7	39.6	39.3	▲ 0.3	▲ 5.7	
	기타 제조	33.7	30.8	33.5	32.1	32.2	29.2	30.8	31.0	31.3	34.8	35.4	35.6	33.3	▲ 2.3	2.9	
전체		38.0	37.0	37.0	36.5	35.4	33.1	32.6	33.1	35.3	37.4	38.6	39.7	40.3	▲ 0.6	2.5	
도매	식품분류도매	36.8	36.0	36.2	35.2	34.1	32.4	33.5	33.9	34.6	35.3	37.1	38.0	39.4	▲ 1.4	5.9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7.2	34.2	33.8	34.4	31.8	32.0	32.4	34.3	34.7	34.6	34.5	37.5	36.4	▲ 1.1	5.2	
	기계·기구·요업·토석제품도매	35.4	35.3	36.9	37.6	37.3	38.3	39.3	39.9	42.2	43.5	44.5	46.3	46.1	▲ 0.2	14.0	
	종이·문구·서적도매	32.6	32.8	32.2	30.9	32.8	28.0	30.2	31.7	31.8	32.3	34.3	36.3	36.5	▲ 0.2	5.2	
	화학제품도매	39.1	38.0	38.5	37.6	36.7	35.6	35.1	34.6	35.9	36.1	38.5	39.7	41.4	▲ 1.7	2.6	
	채산자원도매	36.7	32.2	29.0	35.1	27.0	22.4	30.1	32.1	41.9	48.8	50.6	50.6	46.6	▲ 4.0	4.3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35.9	35.7	35.2	35.7	33.6	32.6	31.6	34.0	37.3	38.2	40.2	38.7	39.9	▲ 1.2	2.8	
	기계·기구도매	38.7	38.8	38.8	37.9	36.9	34.6	33.7	34.1	36.8	38.8	41.0	42.1	41.9	▲ 0.2	3.3	
	기타 도매	37.6	36.1	36.0	35.5	34.1	32.8	32.8	32.2	34.0	35.3	37.1	38.1	39.3	▲ 1.2	4.8	
	전체		37.4	36.7	36.8	36.4	35.3	33.9	33.9	34.5	36.5	37.7	39.5	40.5	40.9	▲ 0.4	5.1
	소매	식품분류소매	36.4	38.0	35.5	37.2	36.7	33.1	34.7	30.6	32.9	38.8	40.5	40.5	41.0	▲ 0.5	7.2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40.7	36.6	34.2	34.0	32.2	32.9	35.5	32.9	34.6	34.4	41.4	40.7	38.6	▲ 2.1	4.1
의약품·의료장비·의료소매		46.7	43.1	45.3	45.8	43.8	42.3	44.4	47.7	49.4	45.7	44.9	44.7	50.7	▲ 6.0	8.7	
가구·가구소매		40.0	36.5	42.4	39.3	36.1	32.1	34.7	38.9	37.5	44.4	46.2	50.0	50.0	▲ 0.0	10.3	
가전·정보기구소매		42.1	38.2	38.9	41.1	40.4	33.8	33.3	34.1	39.5	38.7	41.7	44.1	42.1	▲ 2.0	3.5	
자동차·동·부품소매		45.5	46.6	46.0	40.8	41.5	36.9	31.5	32.1	41.2	42.9	49.4	43.4	47.2	▲ 3.8	15.8	
전용상품소매		35.0	34.9	35.3	33.6	33.0	32.4	32.7	33.0	32.7	35.1	37.0	36.9	37.2	▲ 0.3	5.8	
리조트상품소매		39.1	36.7	39.7	37.1	36.3	35.8	35.3	35.5	38.4	40.5	42.8	45.5	46.9	▲ 1.4	10.8	
기타 소매		25.0	30.6	46.7	47.6	36.1	33.3	33.3	36.7	36.7	31.0	33.3	40.5	35.7	▲ 4.8	9.0	
전체		39.0	38.1	38.3	37.3	36.4	34.2	34.2	34.0	36.3	38.4	41.2	41.1	41.9	▲ 0.8	7.8	
운수·창고		39.5	38.1	39.2	39.5	37.6	36.7	35.3	36.9	38.0	39.5	40.6	41.5	42.6	▲ 1.1	6.0	
서비스		음식점	36.5	40.6	39.6	41.7	39.6	36.0	32.4	35.4	35.7	37.8	43.5	43.8	48.0	▲ 4.2	14.7
	전기통신	51.5	52.1	47.0	53.0	50.0	45.2	48.7	48.7	53.8	53.0	55.0	56.4	55.0	▲ 1.4	1.4	
	전기·가스·수도·열공급	47.9	45.8	40.0	35.4	41.7	37.0	42.6	37.5	43.8	45.8	40.5	48.1	48.1	▲ 0.0	2.3	
	리스·임대	46.1	43.6	44.2	43.6	43.8	43.3	43.7	45.2	45.3	48.4	49.9	49.6	50.7	▲ 1.1	15.7	
	호텔·호텔	41.4	41.7	42.4	42.2	41.7	38.1	40.0	37.2	38.4	40.1	45.8	48.2	49.1	▲ 0.9	21.0	
	교육서비스	38.1	35.5	33.3	36.1	35.0	37.4	36.2	36.7	38.5	38.5	40.6	41.0	38.5	▲ 2.5	6.3	
	방송	43.1	45.1	39.2	40.2	41.2	38.2	40.6	38.5	41.7	37.8	43.8	43.5	44.0	▲ 5.5	7.9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37.8	39.4	38.1	38.9	39.7	37.7	38.4	37.6	40.7	44.0	43.3	43.3	44.8	▲ 1.5	7.5	
	광고·판권	38.3	37.2	37.3	36.1	35.9	35.1	34.7	34.5	35.4	38.9	40.8	42.5	42.4	▲ 0.1	11.6	
	정보서비스	43.3	43.5	43.9	43.7	42.5	42.2	42.8	42.2	45.2	47.3	47.7	49.5	49.3	▲ 0.2	9.9	
	인재관리·소개	51.1	51.9	49.2	50.0	48.8	46.6	42.8	44.9	44.7	48.7	50.3	50.3	50.6	▲ 0.3	9.9	
	전문서비스	41.6	40.0	41.2	41.6	41.1	40.5	40.4	41.1	44.3	46.9	47.3	48.7	50.8	▲ 2.1	16.2	
의료·복지·보건위생	44.0	42.4	43.5	43.8	43.4	41.8	41.1	40.8	45.3	45.7	48.0	49.0	48.8	▲ 0.2	12.0		
기타 서비스	42.3	38.2	41.0	43.2	39.3	42.3	40.1	38.3	46.8	46.8	45.3	48.0	47.0	▲ 1.0	4.9		
기타 서비스	43.9	44.0	44.3	42.8	42.9	41.1	40.7	39.5	42.2	42.1	44.7	44.7	46.2	▲ 1.5	6.6		
전체		42.4	41.9	42.0	42.1	41.5	40.6	40.5	40.5	43.0	45.0	46.2	47.3	47.9	▲ 0.6	11.1	
기타		33.9	35.8	40.0	35.6	38.7	37.4	36.0	36.2	36.7	33.8	35.7	42.3	41.5	▲ 0.8	10.2	
각차 (10개업계별 『기타』 제외)		7.4	7.1	7.5	6.3	6.3	7.5	7.9	7.4	7.7	8.9	11.1	13.4	9.5	▲ 0.0	1.4	
중국진출		41.5	40.3	40.5	38.9	37.4	35.7	35.0	35.5	37.5	39.2	40.3	42.3	43.5	▲ 1.2	2.5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간 격차가 조사개시 이래 최대

• 「대기업」 (46.4, 전월대비 1.1 포인트 증가), 「중소기업」 (42.0, 동 0.5 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 (41.6, 동 0.4 포인트 증가) 모두 개선되었다. 6 개월 연속 전규모가 개선되었으며 규모가 클수록 개선폭이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간 격차 (4.4 포인트) 는 동 0.6 포인트 증가로 3 개월 만에 확대되어 조사개시 이래 최대 격차가 되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기회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아베노믹스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건재·가구도매) 라는 의견도 있고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으로의 파급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2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대기업	40.8	40.3	40.8	40.3	39.5	38.2	38.4	38.7	41.0	42.9	44.2	45.3	46.4	1.1	9.5
중소기업	37.4	36.8	37.1	36.9	36.0	34.6	34.4	34.7	37.1	38.9	40.4	41.5	42.0	0.5	7.1
(그 중 소규모기업)	34.8	34.8	35.4	35.2	35.0	34.0	33.6	33.9	36.9	38.9	40.1	41.2	41.6	0.4	9.7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4	3.5	3.7	3.4	3.5	3.6	4.0	4.0	3.9	4.0	3.8	3.8	4.4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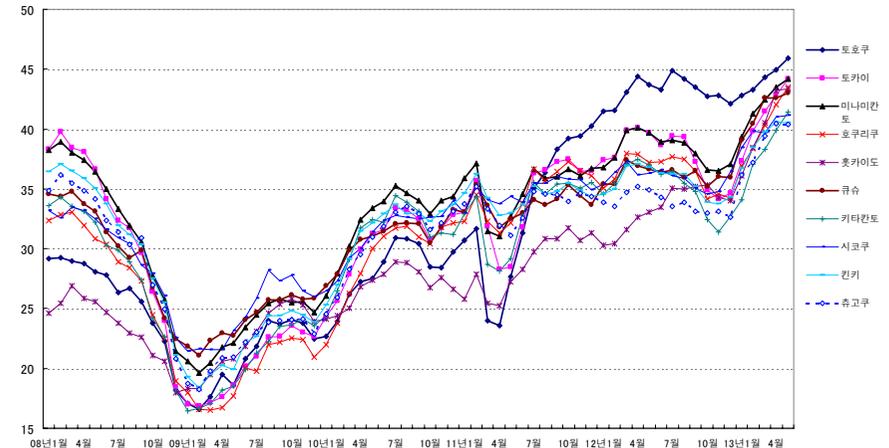
지역별 : 10 지역 중 8 지역이 개선, 조사개시 이래 최초 전지역이 40 을 상회

• 「**기타칸토**」 (41.4) ... 전월대비 1.5 포인트 증가. 6 개월 연속 개선. 엔저로 자동차관련업계가 회복되고 있는 『제조』 (38.4, 동 1.7 포인트 증가), 『운송·창고』 (50.0, 동 9.8 포인트 증가), 지진재해 부흥공사, 택지조성공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46.3, 동 1.5 포인트 증가) 등 10 업계 중 8 업계가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2007년 7월 이래 5년 10개월 만에 40 을 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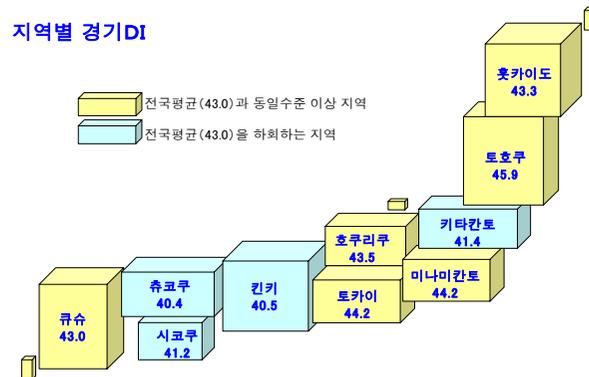
• 「**토카이**」 (44.2) ... 동 1.4 포인트 증가. 엔저 영향으로 기계나 자동차가 개선된 『제조』 (42.7, 동 1.7 포인트 증가), 생산확대로 인해 물류량이 확대되어 5년 7개월 만에 50 을 상회한 『운송·창고』 (52.3, 동 3.3 포인트 증가) 등 10 업계 중 7 업계가 개선되었다. 2012년 8월 이래 9개월 만에 전국 10 지역 중 제 2 위로 상승했다 (전월 제 4 위) .

• 「**토호쿠**」 (45.9) ... 동 1.0 포인트 증가. 지진재해 부흥과 함께 주택부재로의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는 건설자재업종이 견인하여 『제조』 (41.3, 동 0.6 포인트 증가), 『도매』 (44.1, 동 0.4 포인트 증가) 가 3 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또한 센다이·미야기 데스티네이션 캠페인, NHK 대하드라마 효과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하여 『운송·창고』 (38.5, 동 3.1 포인트 증가) 가 2 개월 만에 개선되는 등 10 업계 중 8 업계가 개선되어 21 개월 연속 전국 10 지역 중 제 1 위가 되었다.

지역별 그래프 (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2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재해 전 (2011년2월) 과 비교
홋카이도	33.0	33.5	35.1	35.0	35.2	35.3	34.3	34.0	36.1	38.4	40.5	43.2	43.3	0.1	15.4
도호쿠	43.7	43.3	44.9	44.2	43.5	42.7	42.8	42.1	42.8	43.3	44.3	44.9	45.9	1.0	14.2
기타칸토	37.0	36.2	36.4	35.5	34.8	32.4	31.4	32.7	34.1	37.1	38.3	39.9	41.4	1.5	7.0
미나미칸토	39.7	38.9	39.1	38.9	37.9	36.6	36.5	37.1	39.4	41.3	42.5	43.5	44.2	0.7	7.1
후쿠리쿠	37.2	37.3	37.7	37.5	36.5	34.2	34.6	34.2	36.9	38.4	40.3	42.0	43.5	1.5	9.0
토카이	39.7	38.7	39.4	39.3	37.3	34.9	34.2	34.6	37.4	39.8	41.5	42.8	44.2	1.4	8.5
킨키	36.8	36.3	36.2	36.3	35.2	33.9	33.8	34.3	36.7	38.5	39.7	40.6	40.5	▲ 0.1	4.2
츄고쿠	34.9	34.3	33.5	33.9	33.1	33.0	33.1	32.6	36.2	37.2	39.4	40.4	40.4	0.0	5.2
시코쿠	36.3	36.6	36.1	35.9	35.1	34.6	34.8	36.4	38.4	39.8	39.7	41.0	41.2	0.2	6.0
큐슈	36.7	36.4	36.6	36.0	36.5	35.2	36.0	36.0	39.0	40.5	42.6	42.6	43.0	0.4	7.6
격차	10.7	9.8	11.4	10.3	10.4	10.3	11.4	9.5	8.7	6.2	6.0	5.0	5.5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